# 성로 스님 “교구 안정 위해 정진”

## 은해사, 5월 17일 신임 주지 고불식 봉행

**혜국 대종사 등 참여해 ‘축하’**
**허광욱 신도회장 임명장 전달**
**본말사, 영천 · 경산시 기부도**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29대 주지에 성로 스님이 취임했다. 성로 스님은 고불식에서 교구 화합과 지역 상생을 발원했다.

은해사는 5월 17일 극락보전 앞 중정에서 성로 스님의 주지 취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는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를 비롯해 동곡당 일타문도회 문장인 혜국 대종사,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 대종사,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중앙종회 정법회장 탄원 스님, 중앙종회 선우회장 보인 스님, 운부선원장 불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최정애 영천시장 권한대행과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주호영·이만희·조지연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허광욱 신도회장을 비롯한 본말사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성로 스님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성로 스님은 고불문에서 “은해사는 오랜 세월 부처님의 법등이 이어져 온 수행도량이자 선지식의 발자취가 이어져 온 청정도량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해사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고 수행과 포교,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교구를 만들겠다”고 서원을 밝히며 “교구의 안정과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의 뜻을 먼저 살피며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구를 만들겠다”며 “젊은 세대와 불자들이 다시 찾는 교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은해사 조실인 법타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성로 스님이 은해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원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로 스님이 5월 17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29대 주지에 취임했다. 스님은 “은해사 전통과 정신을 지키고 수행과 포교,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교구를 만들겠다”고 서원했다.

석종사 조실 혜국 대종사는 법어에서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이 생기고, 우리가 돌아갈 때 세상도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며 “부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고불식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고불식에서 성로 스님은 최근 추대된 허광욱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임한 한세현 전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은해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발원하며 영천시와 경산시에 각각 1000만원의 자비 성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은해사는 고불식에 앞서 국악과 성악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를 마련해 사부대중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은해사 극락보전을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문화유산 지정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 법안 스님, 군장병 2000명 수계

**5월 16일, 호국연무사서**



논산 안심정사는 5월 16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안심정사는 장병 신행활동 지원을 위해 호국연무사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법회에는 회주 법안 스님을 비롯해 신근 스님, 이우진 육군훈련소 제27교육연대장, 대전·세종·충남 포교사단, 불교어머니회 관계자와 군 장병 등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부모 곁을 떠나 처음 공동생활을 하는 시기인 만큼 나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길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훈련병 2000명에게 햄버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수계의식에서 장병들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했으며, 계첩과 법명을 받고 계를 지키며 바른 군 생활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선운사, 재가불자 합동 수계식

**5월 17일, 110명에 수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5월 17일 대웅보전에서 재가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선운사 불교대학생과 신도회 임원, 선운사 복지재단 관계자, 선운사 종무원 등 110명이 동참해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했다.

수계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혜수 스님의 인례와 혜도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받은 오계는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단단한 지팡이와 같다”라며 “수계는 단순히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계법회에 이어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수계제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풍성한 봉축 음악회가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고려 여덟 국사 가르침 기리다

**강진 백련사, 5월 17일**
**고려 팔국사 다례재 봉행**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5월 17일 만경루에서 ‘제18회 만덕산 백련사 고려 팔국사 다례문화제 및 학술세미나’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시대 몽골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참회와 염불 수행으로 민중의 고통을 어루만졌던 백련결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현대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다례재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백련결사 운동을 이끌었던 원묘 국사 요세 스님을 비롯해 천인·원환·천책·정혜·원혜·진감·목암 국사 등 여덟 국사의 위패와 진영에 향과 꽃, 만덕산 첫물 야생 햇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으로 진행됐다.

주지 설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1000여 년 전 나라 안팎이 혼란했던 시기, 이곳 백련사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삶을 정직하게 따르고자 했던 백련결사 운동이 일어났다”며 “선대 스승들께서 일궈 놓으신 깊은 토대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학술세미나에서는 백련결사의 역사적 가치와 백련사의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조선후기 백련사 아암 혜장이 차문화에 미친 영향’을 통해 백련사 차문화 전통과 혜장 스님의 정신세계를 조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승사 대승선원, ‘21일 용맹정진’ 회향

**5월 9일 수좌 24명 회향**
**“선문의 맥 이어나가길”**



문경 대승사 대승선원(선원장 정명 스님)이 5월 9일, 21일 용맹정진을 원만히 회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전통 수행이 다시 이어지며 한국 간화선 수행의 맥을 잇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용맹정진에는 제방선원에서 27명의 스님이 입방했으며, 최종 24명이 회향했다. 이번 정진 기간 동안 선객 스님들은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좌복을 배치해 정진에 임했으며, 많은 대중으로 좌복을 ‘ㅁ’자 형태로 배치했다.

이번 용맹정진은 재가불자들의 외호와 공양 보시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됐다. 수월심 신도회장과 선원 외호팀 도안·우일행·무준·자성화 불자 등이 수행 기간 내내 선원을 돌보며 정진 대중을 지원했다. 신도들은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인 1조로 공양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승사 주지 효원 스님은 “21일 용맹정진이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 속에 원만히 회향됐다”며 “앞으로도 대승사는 한국불교 전통의 용맹정진을 이어가며 쉼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선원장 정명 스님은 회향 법문을 통해 “오늘 회향은 끝이 아니라 다시 대의단을 품고 생사의 바다 속 중생을 향해 걸어 나가는 새로운 발심”이라며 “사불산의 청정한 선풍이 다시 한국 간화선의 등불이 되어 후학들의 마음을 밝히고 선문의 맥을 길이 이어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진주 호국사, 진신사리 친견 법회

**5월 17일 봉안…8월 24일까지**



진주 호국사(주지 학암 스님)는 5월 17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학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진신사리 친견의 의미는 자신 안에 있는 불성과 자비심을 일깨우는 데 있다”며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호국사에 봉안된 진신사리는 달라이라마가 전수해 내려오던 사리 가운데 일부다. 사리를 한국으로 이운할 당시 부탄 국왕 지그메 싱예 왕추크 왕가의 명함집에 담겨 전해졌으며, 당시 함께 보내온 종려나무 잎에 부처님 말씀을 새긴 경전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호국사 진신사리 친견은 8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